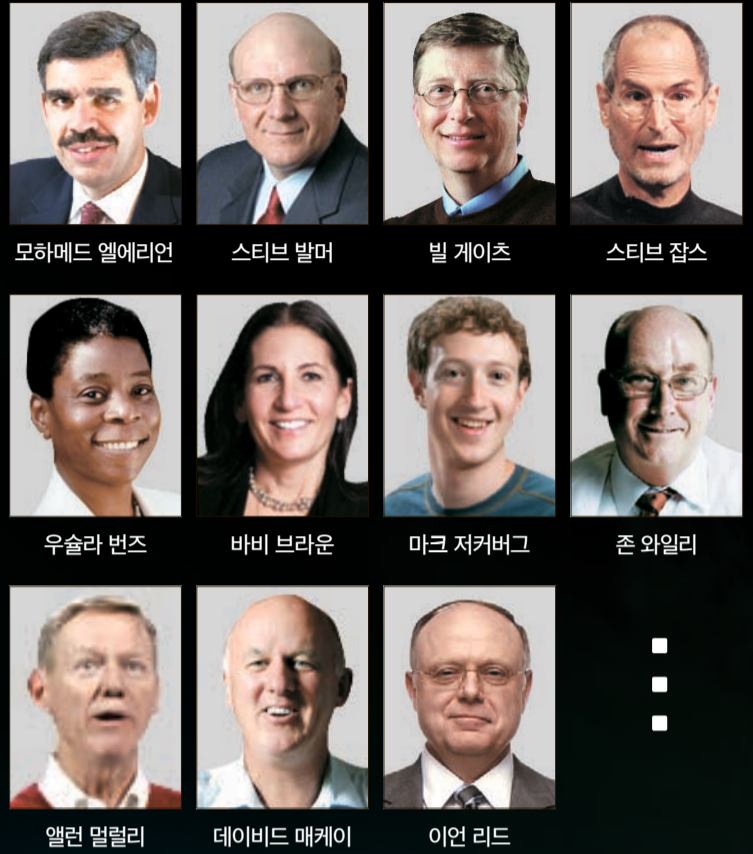


CEO 되고 싶다고? 5계명을 새겨라



40세 전후의 헬기왕성한 중간간부가 100명인 기업을 상상해보자. 그 자리가 지 오르자면 나름대로 다들 똑똑하고 일도 잘했을 것이다. 그러나 임원 자리는 제한돼 있다.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임원이 되려면 어떤 '비장의 무기'를 가져야 할 것인가. 뉴욕 타임스(NYT)에 '코너 사무실'이란 칼럼을 쓰고 있는 에덤 브라이언트가 70명의 미국 CEO 인터뷰를 통해 비결 다섯 가지를 풀어냈다. 코너 사무실이란 근사한 경치를 볼 수 있는 오피스빌딩의 창문 쪽 방을 말한다. 중간간부에서 임원으로 승진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NYT 칼럼니스트 브라이언트 CEO 70명에 성공 비결을 묻다

① 열정적인 호기심을 가져라

성공한 CEO는 대개 호기심이 많다. 포드자동차 앨런 말랄리 CEO는 "나는 인간본성에 대한 탐구자"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때론 무릎을 치는 아이디어가 성가신 5살짜리 어린이와 같은 질문에서 불쑥 튀어나오기도 한다. "사람들은 왜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걸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대부분 당연하다고 여기고 반복적으로 하는 일 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태도야말로 남들이 가보지 못한 신천지를 여는 열쇠다.

② 역경을 이겨낼 투지를 길러라

상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맡겼다. 대부분 간부는 안 되는 이유부터 찾는다.

그러나 성공할 간부는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한번 부딪쳐보죠." 누구나 역경은 겪기 마련이다. 이를 이겨낼 투지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나 성공의 갈림길이다.

네덜란드 출판회사 월터스 클루버 CEO 낸시 매킨스트리는 "사람을 고를 때마다 나는 그가 과거에 경험한 역경에 대해 물어본다"고 말했다. 과거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에겐 '투지'라는 면적이 생기기 때문이다.

③ 팀에 생명을 불어넣어라

팀 플레이만으론 부족하다. 한 걸음 더 나가 팀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뜻을 모으도록 이끌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카디널헬스의 CEO 조지 배렛은 경험담 하

나를 소개했다. 40~50명의 매니저 앞에서 간부 두 명이 브리핑을 했다.

한 간부는 모든 매니저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했다. 참석자는 이 간부의 브리핑에 온통 집중했다.

이와 달리 다른 간부는 자신의 원고만 보며 브리핑했다. 매니저들은 판짓을 하기 시작했다. 간부가 되려면 독불장군이 돼선 안 된다. 팀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나의 지시에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내다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④ 핵심을 바로 짚어라

간부들이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긴 파워포인트 브리핑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보라'는 식의 브리핑은 CEO를 짜증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단 열 마디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결론부터 이야기하라.

마이크로소프트(MS)에선 중역회의 때 파워포인트 자료를 스티브 발머 CEO에게 먼저 보내야 한다. 발머는 자료를 미리 다 읽어보고 회의시간엔 궁금한 사항과 해결책만 이야기한다.

⑤ 모험을 즐겨라

현상유지만으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간부라면 늘 새로운 모험에 도전해야 한다. 제록스 CEO 우술라 번즈는 "회사가 위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때는 간부들이 '모든 게 OK'라고 말할 때"라고 말했다. 모험은 불편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모험을 즐기지 않는 회사는 도태된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jkmoo@joongang.co.kr

9년 만에 돌아온 현대 '사훈 비석'

오일뱅크에 있다 주인 바뀌며 철거 노조위원장이 집 마당에 보관 현대중공업이 인수 후 다시 세워

옛 현대그룹의 사훈을 새겼던 돌 비석이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철거된 지 9년 만에 다시 세워졌다. 새로 만든 게 아니라 2002년 철거했던 바로 그 사훈석이다. 오일뱅크가 한때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면서 사라졌다가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한 것을 계기로 제자리에 돌아온 것.

16일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이 회사는 김태경(50) 노조위원장이 집 마당에 보관해 오던 사훈석을 지난해 대산 공장 본관 앞마당으로 옮겼다. 사훈석은 폭 2m, 높이 1m, 둘레 5.7m에 무게 6t짜리로 '근면·검

소·친애'라는 사훈이 한자로 새겨져 있다. 이 사훈석은 1997년 옛 현대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세워진 것이었다. 그러다 외환위기로 인해 현대오일뱅크의 주인이 외국계 자본으로 바뀌면서 2002년 철거됐다. 김 위원장은 "철거작업을 보자 웬지 가슴이 아파 버리지 말라고 부탁하고는 집에 갖다 놓았다"고 말했다. 대형 크레인까지 불러와야 했던 바람에 당시 자기 돈 150만 원을 들였다. 먼지가 끼면 닦아 주고 겨울에는 천으로 덮어 보호했다.

시간이 흘러 지난해 8월 현대중공업이 오일뱅크를 인수하게 됐다. 인수 기념행사에서 김 위원장은 민계식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에게 사훈 액자를 전하는 것을 봤다. 액자의 사훈이 비석의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고는 이를 다른 임원에게 알렸고, 결국 다시 세우게 됐다.

권혁주 기자 woongjoo@joongang.co.kr



김태경 현대오일뱅크 노조위원장이 9년 만에 다시 세운 사훈 비석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삼성기능경기대회 협력사도 초청한다

삼성이 그룹 내 행사인 '삼성기능경기대회'의 문호를 협력사로까지 넓혔다. 올해부터 협력사의 기능인들도 초청해 기술·기능 경쟁을 벌인 것. 삼성그룹은 14~15일 삼성전자·삼성중공업 등 9개 계열사와, 협력사인 하나마이크론·라임시스 2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 실내체육관과 삼성중공업 거제연수원에서 '제4회 삼성기능경기대회'를 했다. 2008년부터 열린 이 행사에 협력사가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은 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하는 것 말고도 삼성전자가 국제기능올림픽을 후원하는 등 기능인력 양성과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2007~2010년 4년에 걸쳐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345명을 채용했다. '제조 현장의 경쟁력은 기능인력으로부터 나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2009년 9월 캐나다 캘러리에서 열린 제40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제조업의 힘은 현장이며, 현장의 경쟁력은 기능인력에서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전국공업고등학교 교장 20명을 삼성전자 수원공장으로 초청해 "기능인력이 사회 톱클래스로 대접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우수한 기능인력을 많이 양성해서 삼성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혁주 기자

탑항공 실시간 예약서비스 실시 www.toptravel.co.kr
top-travel.co.kr / bonsa.toptravel.co.kr / e-toptravel.co.kr / www.air-sale.co.kr

50% SALE

4~6월 캐나다 항공권 지금 예약하면 반값!

탑-에어캐나다
성수기 얼리버드 항공권 오픈

거리가 멀수록, 유가가 올라갈수록 탑-에어캐나다 얼리버드가 답입니다

(주) 탑항공 AIR CANADA

[탑항공 81개 지점]
 본사 총로 광화문 시청 을지로 세운 총로4가 명동 남대문 강서 김포공항 우정산 목동 당산 영등포 여의도 구로 신대방 서당 교대 G마켓 영재 반포 압구정 강남 논현 선릉 대치 도곡 청담 잠실 잠실생내 문정 강변 왕삼리 청구 동대문 청량리 돈암 월곡 노원 중계 수유 연신내 마포 서교 신촌 한남 용산 동구이촌 인현공평 인현 김포 부평 삼산 부천 중동 시화 안산 안양 수원 수원역 영등 오산 평택 분당 정자 분당수내 분당미금 분당서현 용인죽전 광주 이천 구리 의정부 신의정부 동두천 화정 일산 마두 정발산

해외여행 갈 땐 1688-1001 모든 여행은 탑으로 통한다 ▶ 항공권/패키지/에어텔/호텔/여행자보험